

문화

Culture

15 광주일보

제17467호 2006년 6월 7일 수요일

광주연극인 합동공연 '심청'

9~11일 광주영상예술센터

광주 지역 연극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2006 광주연극 협회 합동공연 '심청'(연출 오성환)이 공연된다. 9~11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일요일 오후 5시 광주영상 예술센터(옛 KBS 광주방송총국).

누구나 알고 있는 심청전을 모티프로 삼은 '심청'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작품, 판소리 심청전을 기본으로 국악가요, 트로트 등의 노래 등이 함께 어우러진 퓨전 마당극 형식으로 꾸며 관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구·김안순·양희경·김현란·김명대·정일행·김현수씨 등이 출연하며 내부소리 민족예술단이 라이브 연주를 맡아 현장감을 더해준다.

일반 1만2천원, 청소년 7천원(사랑티켓 관람 가능) 062-523-7292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Biking A+B'

데이비드 걸스타인 광주전

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화려하고 대담한 색상과 독특한 이미지 커팅을 선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걸스타인의 작품이 광주에서 첫선을 보인다. 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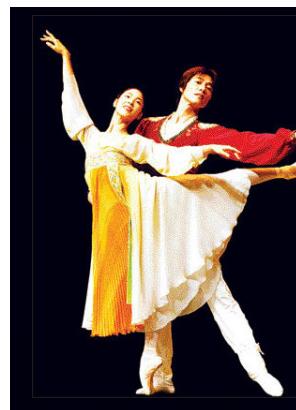
데이비드 걸스타인은 예루살렘 브라질 예술학교를 거쳐 파리 애꼴 데 보자르와 뉴욕 아트스튜던트 리그 등에서 공부했으며, 세계 유명 백화점, 학교, 공원, 놀이터 등에 작품이 전시될 정도로 각광받는 작가다.

'Color magic'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걸스타인은 조각, 오브제, 테이블, 아트상품 등 반짝이는 느낌과 밝고 경쾌한 색채가 어우러진 개성 넘치는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역동적인 도시풍경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물들과 식물을 주제로 한 이미지, 봄·여름·가을·겨울 등에 작품이 전시될 정도로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준다.

걸스타인 작품의 주재료는 독특한 재질감과 반짝이는 느낌의 알루미늄이다. 목탄이나 연필 드로잉을 기본으로 컴퓨터 작업한 뒤 레이저로 알루미늄 판을 잘라내 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쳐 제작됐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척박한 땅에 뿐린 '舞郷의 씨' 서른 해

창단 30주년 맞는 광주시립무용단



서 작품을 올린다.

무용수의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 무용단원은 단장 등을 포함 50여명이지만 무용수가 적어도 10여명은 더 확보돼야 제대로 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다. 특히 발레단을 대표할 스타급 주역 무용수를 발굴하고 기위내는 게 급선무다.

박금자 전 단장은 유능한 발레 마스터의 초빙을, 박경숙 전 단장은 광주시 차원의 국제 발레콩쿠르 유치 등을 통한 '광주의 발레 도시화' 등을 제안했다.

9·10일 창작발레 '이순신' 공연

한편 무용단은 30주년을 맞아 '우수영의 원무'를 제구성한 '이순신'을 9일 오후 7시30분, 10일 오후 5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하는 이번 작품은 '인간' 이순신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강강수월래 신 등이 볼 만하다. 이후 오는 10월 서울과 광주에서 '서동묘'를 공연한다.

이영애 단장은 "창단 때 '백조의 호수'에서 주역을 맡았는데 30주년 기념작을 무대에 올리게 돼 영광"이라며 "단원들의 기량향상에 힘을 쓸어 내년에는 새로운 작품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062-522-8716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심청' '백조의 호수' 등 레퍼토리

당시 조선대 교수였던 박금자(현 광주예총 회장)씨를 단장으로 탄생한 무용단의 초창기는 악전고투였다. 연습실이 없어 조선대 동창회관, 화니백화점 등 박씨의 집은 개인 연습실을 전전했고 창단 단원은 30명이었지만 절반 정도는 상임단원이 아닌, 학생으로 월급도 없었다. 박 씨는 개인 사비를 털어 무용단을 운영했다.

초창기 무용단은 발레 뿐 아니라 현대무용을 비롯, 장구춤·화관무·부채춤 등 한국무용까지 섭렵해야 했다. 완벽한 '발레단'으로의 변신은 1992년부터.

무용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레퍼토리. 시립무용단은 전통

소재의 발레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박금자 전 단장이 '춘향전' (1982)을 무대에 올린 이후 '십전전'·'장희전'·'우수영의 원무' 등을 선보였고 이후 박경숙(1996년~2003) 이영애 단장도 '시집가는 날'과 '서동묘'를 발표했다.

'전막 공연'은 1984년 '자진이' 처음이었다. 이후 '백조의 호수'·'돈키호테'·'코렐리아'·'잠자는 숲속의 미녀'·'카르멘'·'고집쟁이 딸' 등이 공연됐고 지난 1997년 처음 무대에 올린 '호두까기 인형'은 이후 매년 연말마다 광주시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이 됐다.

초창기 무용단이 광주시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시민들을 만났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관객 '개인'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해설이 있는 발레 감상'·'불우어린이 초청 시립무용단 연습실 공연'·'어린이 발레 교실' 등이 대표적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1996년 단장과 일부 단원들의 불협화음이 '해죽' 사태까지 이어졌고 재임용을 둘러싸고 말썽을 일으켰던 부분은 무용단 역사의 아픈 부분중 하나입니다.

예산확보·무용수 증원 과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해야 할 무용단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전·현직 단장들이 모두 지적하는 부분은 작품 예산의 확보. 올해 무용단의 작품 관련 예산은 9천만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늘 '아쉬움' 속에

지난 1976년 창단된 광주시립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1992년 초연했던 '우수영의 원무'를 재구성한 '이순신'을 무대에 올린다.

지난 1976년 창단된 광주시립무용단이 창단 30주년을 맞아 1992년 초연했던 '우수영의 원무'를 재구성한 '이순신'을 무대에 올린다.

파격적 건축 서울대미술관 오늘 개관... '현대미술로의 초대' 展



대미술의 대가들의 작품이 선보인다.

모리스 루이스·프랭크 스텔라의 추상회화와 모리스 룰의 대지미술 설치작품, 노상균의 평면작품, 이우환의 추상화 '점으로부터' 연작, 댄 플레빈의 형광등 구조물, 이상남의 기호모양 회화, 조지 시길의 브론즈 '러시아위', 안젤름 키퍼의 '멜랑콜리아', 김환기의 점화,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작품 '네이트', 제니 허처의 전광판 설치 작품, 오재프 보이스의 사진 등 20점이 걸린다. 전시작들은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현대미술관, 개인 소장품들이다.

교육기능·'열린미술관' 지향

정형민 관장(서울대 동양화과 교수)은 "대학 미술관으로서 교육 기능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학내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미술관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02-880-9504, www.snumoa.org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미래형 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한 건물로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 미술관이 오늘 개관한다. 원안은 미술관 내부.

을지공인증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회순 도곡온천 단지나
최고 성업 중인 무인텔
(세아시티, 보구구)

임대 매매 268평
보증금 월160만
공사기간 단 788만

증내 4층 5층 상가

대 55평 건 268평
보증금 월160만
공사기간 단 788만

증내동 동화지구와 바다마을 사이

42평 20평으로 째(공사기간)

140평 x 390평

증내동 공천교회 부근

아름다워 회화(8M 계화도로 째)

50평 x 170평

임대 매매 10평

임대 매매 20평

임대 매매 20평